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인 KIA타이거즈가 27일 오후 킨구장에서 한화이글스와 연습경기를 벌이고 있다. 2대 0으로 뒤지던 2회말 KIA 이인행이 1점 홈런을 날린 후 덕아웃으로 들어오고 있다. /오키나와=김진수 기자 jeans@

코리안빅리거 시범경기 활약

김현수 첫 안타·타점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올해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 첫 안타와 타점을 올렸다. 작년보다 4배나 빠른 속도다.

김현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의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1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출발은 불안했다. 김현수는 1회 첫 타석에서 피츠버그 우완 선발 제임스 타이온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1-1로 맞선 2회말 2사 1,2루에서 좌전 안타를 쳤다. 김현수의 적시타에 2루 주자 요니탄 스프로가 여유 있게 홈을 밟았다.

김현수는 5회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6회초 수비 때 아내우리 타바레스와 교체됐다. 김현수는 25일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두 번째 경기에서 안타를 신고한 김현수는 올해 시범경기에서 6타수 1안타(타율 0.167)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황재균 선발출전서 적시타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첫 선발 출전을 적시타로 기념했다.

황재균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쿠키어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에서 8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했다.

그는 25일과 26일, 교체 출전했다. 세 번째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기쁨을 누렸다. 첫 타석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황재균은 2회 신시내티 우완 팀 에들먼의 구위에 놀려 유격수 땅볼에 그쳤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달렸다.

5-4로 앞선 4회 2사 1, 3루에서 우완 로버트 스티븐슨과 맞선 황재균은 좌전 적시타로 1점을 올렸다. 하지만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는 달성하지 못했다.

황재균은 5회 1사 1루에서는 중견수 뜬공으로 돌아섰고, 7회 타석에서 라이더 존스로 교체됐다. 이날 그의 성적은 3타수 1안타 1타점이다.

황재균은 처음 치른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인 25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2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다. 하지만 26일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는 3점포를 쏘아 올리며 장타력을 과시했다.

이번 시범경기 성적은 6타수 2안타(타율 0.333), 1홈런, 4타점이다.

/연합뉴스

류현진 3월 2일 등판

부활을 노리는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이르면 3월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트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등판할 전망이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27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류현진의 시범경기 등판 시점'을 설명했다고 지역지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로 소식을 전했다.

다저스 인사이드 등 다저스 전문 매체도 로버츠 감독의 말을 상세하게 전했다.

로버츠 감독은 "다음 불펜피칭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류현진과 스코트데일의 선발 등판 일정이 정해진다. 3월 2일 경기에서 선발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두 차례 불펜피칭과 두 차례 라이브 피칭을 했다. 라이브 피칭 다음 단계는 실전 등판이다.

애초 미국 언론은 류현진이 마이너리그 스프링캠프에서 첫 실전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무대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로 바뀔 수 있다.

/연합뉴스

“과감하고 자신있는 플레이를 하라”



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6연패 탈출 김기태 감독의 주문
연습경기 3시간 20분이 웬말
중요한 것은 개막전과 시즌
맞아도... 못 쳐도... 쳐도 괜찮아
백센전은 두 시간만 경기하자

“내일은 두 시간만 하자.”

6연패에서 탈출한 승장의 주문은 ‘짧은 경기시간’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8-7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 전까지 일본 팀과의 연습경기에서 6전 전패를 기록했던 KIA는 9회말 무사 만루에서 나온 신병수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연패에서 벗어났다.

경기가 끝난 뒤 김기태 감독은 선수단 미팅에서 “무슨 연습경기를 3시간 20분 동안이나 하나. 내일은 짧게 끝내자”는 주문을 했다.

김 감독의 속뜻은 과감하고 자신있게 플레이를 하라는 것이었다.

김 감독은 “맞아도 괜찮고, 못 쳐도 괜찮다. 앞서 연패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개

막전과 시즌이니까 연습해보는 것이다”며 “볼넷, 콜플레이, 한 발 등 작은 것에 승리를 내주면 얼마나 아쉽겠나. 경기 시간이 길었다. 연습경기인데도 템포 빠르게 가져가면서 자신있게 플레이를 하지 못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자신있는 플레이, 생각하는 야구를 강조한 김 감독은 연습경기에서 특별한 사인을 내지 않고 있다. 한화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감독은 “오간도 때 번트 작전 하나 빼고는 선수들에게 맡겼다. 잔 실수들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백업도 잘 들어가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 다음 타자에게 또 투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레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도 괜찮다. 자신있게 경기를 하면 된다”고 말은 해왔지만 김기태 감독도 승리

가 내심 반갑다.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는 승부를 하며 만든 승리였다.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연패 탈출과 마운드 맞대결이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KIA는 6전 전패, 한화 역시 연습경기 전적이 1무7패로 승리가 급한 두 팀의 만만치 않은 눈길이었다.

KIA에서는 마운드의 한 축으로 성장한 홍건희, 한화에서는 180만 달러에 한국무대를 찾은 ‘빅리거’ 오간도가 선발로 등장을 했다.

선발에 이어 불펜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도 화려했다. KIA의 새 전력 박경태·손동욱(이상 좌완), 박진태(사이드암)와 함께 ‘선발후보’ 김윤동 ‘차세대 마무리 후보’ 한승혁이 출격을 준비했다. 한화에서는 배영수, 정우람, 송신영에 이어 윤규진

이 나란히 등장했다.

막강 선발을 만난 KIA는 오간도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날린 이인행의 활약과 집중력의 9회로 승리를 만들었다. 7-8로 뒤진 9회초 한승혁이 마운드에 올라 최고 154km의 직구를 앞세워 1피안타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은 뒤 9회말 공격이 시작됐다. 선두타자 안치홍에 이어 김선빈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2·3루에서 ‘홈런 타자’ 이인행이 동점타를 터뜨렸다. 이어 대타 이흥구의 몸에 맞는 볼로 만루가 채워졌고 신병수의 중견수 플라이 때 3루에 있던 김선빈이 홈을 밟으면서 8-7 승리가 완성됐다.

기본 좋은 끝내기로 연패를 탈출한 KIA는 28일 백센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민호(오른쪽) 수비코치가 아들인 한화 투수 김성훈과 경기장 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키나와=김진수 기자 jeans@

야구 부자의 짧은 만남

KIA 김민호 코치-한화 루키 김성훈

야구 부자(父子)의 짧은 상봉이었다.

27일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연습경기가 열린 오키나와 킨구장. 관중석에서 아련한 눈빛으로 홈 팀 KIA의 덕아웃을 내려다보는 한화 선수가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스프링 캠프에 나선 ‘야기독수리’ 김성훈이었다.

그는 2017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2번으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고졸 신인투수다. 한화 스프링캠프의 막내인 그는 KIA 김민호 수비 코치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날 경기조에서 빠진 그는 다른 한화 선수들과 관중석에 앉아 연습경기를 지켜보았다.

같은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치르고 있지만 부자는 전하로만 안부를 물었다. 각자의 훈련 스케줄이 다른데다 KIA와 한화 숙소는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린 국내 구단 중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날 경기조가 아니었던 김성훈은 한화 캠프지만 고친다 구장에서 훈련을 끝낸 뒤

에야 뒤늦게 킨구장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경기 전 아버지와 만나지 못했다. 눈으로만 아버지를 쫓던 김성훈은 클리닝 타임 때 잠시 부자 상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버지가 아닌 야구 선배로서 이야기를 건넨 김민호 코치는 짧은 대화가 끝난 뒤 “편하게 하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김성훈은 “캠프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요즘 뜻대로 야구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다. 프로에 오니까 김민호 코치의 아들이라는 시선도 있고,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부담을 갖는 것 같다”며 “많은것을 여쭙보고 싶은데 어지러 자주 연락을 드리지 않았다. KIA 경기에 나오고 싶었는데 어렵다. 그래도 잠깐이나마 아버지를 뵈게 돼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미소를 지었다.

한화는 28일 미야지키로 2차 캠프를 떠난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두 부자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게 된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이인행 방망이 펄펄... 빅리거 출신에 ‘깜짝 2홈런’

‘깜짝’ 홈런 타자의 등장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27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를 가졌다. 180만 달러의 ‘빅리거’ 오간도가 한화 선발로 나오면서 마운드에 눈길이 쏠렸던 경기였지만 ‘깜짝 주인공’은 내야수 이인행이었다.

이날 2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이인행은 2회 선두타자로 나와 오간도의 146km 직구를 강타해 우월 솔로포를 만들었다. 동료의 열렬한 환호 속에 덕아웃으로 들어온 이인행. 여기에서 그의 무대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인행은 두 번째 타석이었던 3회 2사 2루에서 다시 타석에서 섰고 이번에는

오간도의 133km 슬라이더를 공략했다. 방망이를 떠난 공은 큼직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한번 우측 담장을 넘어갔다. 오간도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날린 이인행은 앞선 타석보다 더 큰 환호 속에 홈을 밟았다.

9회에도 이인행은 한화 윤규진을 상대로 동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영웅이 됐다. 경기가 8-7 역전승으로 끝나면서 ‘이인행의 날’이었다.

이인행은 “빠른 공이 좋은 투수라 첫 타석에는 직구에 초점을 맞춰서 타격을 했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슬라이더를 던질 것을 계산하고 슬라이더 궤적을 봐두고 타격했다”며 “한 타석 한 경기라도

더 많이 출장하고 싶다. 어떤 포지션이라도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리수’를 통한 승부 뒤에는 또 다른 비결이 있었다. ‘긍정의 힘’이 바로 그것이다.

이인행은 “앞서 연습경기에서 안타를 하나도 때리지 못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그런데 잊고계 이범호, 김주찬, 나지완 선배님하고 같이 타격 연습을 했다. 선배님들이 타격하는 거 보여주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감독님께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큰 힘이 됐다”며 활짝 웃었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BC 4번타자 최형우 방망이는 언제 터질까?

쿠바전 등 4경기째 무안타

야구 대표팀의 4번 타자 최형우(34·KIA 타이거즈)의 방망이는 ‘아직’이다.

국내 최고 좌타자라는 명성을 얻은 그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도 뽑혔다.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하지만 영예롭게 승선한 대표팀에서 아직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못하고 있다.

2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쿠바와의 평가전에서도 최형우의 방망이는 침묵했다.

4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6회초 대타 민병현으로 교체될 때까지 2

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4회초 무사 1루에서는 병살타로 공격 흐름을 끊기도 했다.

그는 최근 일본 프로팀, 쿠바와의 평가전 총 4경기에서 안타를 하나도 생산하지 못했다.

중심타선의 핵심에 있는 선수가 제 몫을 못하니 대표팀의 공격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대표팀을 이끄는 김인식 감독은 최형우에 대한 번치 않는 신뢰를 보인다.

김 감독은 쿠바와의 평가전을 마친 뒤 “선수는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며 “공격이 늘었다”고 두둔했다.

그는 “최형우가 늘 3, 4, 5번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라고 믿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안타 생산이 없어서 그렇지, 최형우도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최형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WBC가 없는 예년 이맘때는 선수들이 각자 소속팀에서 몸을 만들고 실전 감각 익히기에 한창일 시기다.

최근 치른 4차례의 평가전도 다음 달 6일 시작하는 2017 WBC 본선 무대를 위한 예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표팀은 28일 호주와 평가전을 치르고 다음 달 초 상무, 경찰야구단과 시범경기를 한다. 최형우의 방망이가 WBC 개막 전에 확실하게 불붙기를 야구팬들은 기대한다.

/연합뉴스